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세요” 진안군, 농산물 가공창업 지원

종합가공센터 운영... 창업코칭 교육·시제품 개발 등 추진

진안군은 유통전문판매업을 보유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공센터는 좋은 아이디어는 있으나 가공업 창업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손쉽게 창업의 꿈에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운영 중이다. 가공센터는 홍삼추출기, 환·분말제조기 등 50여종의 가공장비를 활용하여 홍삼순액, 아로니아분말 등 4유형 20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지난해에는 가공품을 4톤 정도 생산하여 3억 2,000만원의 농외소득을 올렸다. 또한 코로나19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위원회를 개최, 가공수수료와 포장재 이용료를 인하했으며 판로개척을 위하여 농업인의 유통·마케팅 전략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한 관측지원 교육도 7회 시행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다. 올해에는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예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영·마케팅 교육, 식품위생 관련 법규 및 최신 소비트렌드 교육 등 창업코칭 교육과 함께 관내 농산물을 활용한 시제품 개발 및 공정표준화 수립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진안군농업기술센터 고경식 소장은 “진안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농업인 가공창업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지난해 연매출 4억원 이하·연매출액 전년 대비 감소 소상공인 대상

무주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지원 될 버팀목자금을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무주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신청 받고 있는 버팀목자금을 꼭 접수 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지난해 연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과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수입이 감소한 무주지역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원금은 100만원~30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희망자는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신청해야 하며, 버팀목자금 콜센터(1522-3500, 1588-0700)를 운영하고 있다. 단 온라인 신청이 힘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을 도와주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로 집합금지 지원 대상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플라렉 등 유흥업소 5종과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스

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가 해당된다. 식당을 비롯한 카페, 숙박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 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는 영업제한(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대상 소상공인이다. 산업경제과 이상형 과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될 자금이 될 것”이라며 “많은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관광지 코로나19 방역관리 총력

무주군, 2월말까지 반디랜드 등에 방역관리 요원 배치

무주군이 오는 2월말까지 무주 유명 관광지에 방역관리 요원을 배치하는 등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안전한 관광을 담보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무주덕유산리조트에 4명, 반디랜드에 3명, 머루

와인동굴에 1명 등 무주지역 관광지 5곳에 10명의 관광지 방역관리 요원을 배치했다. 군은 지난해 3월부터 주요 관광지와 관광안내소에 생활방역 수칙 준수사항을 안내하는 배너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관광객 방명록과 손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관

광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힘써 왔다. 또 겨울철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관광지 방역관리 요원들을 활용한 관광객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여부 점검, 생활방역 수칙을 안내하는 등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 설 명절 연휴를 맞아 관광지 방역 실태 특별 점검반과 방역관리 요원을 통해 방역 준수 여부, 출입자 방명록 작성과 관리 여부, 종사자와 관광객의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박찬주 무주군의회 의장,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박찬주 무주군의회 의장이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하며 자치분권 2.0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겠다고 다짐했다. 박찬주 의장은 지난 19일 안기전 금산군의회 의장의 챌린지 지명을 받아 홍보팸말을 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참했음을 알렸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난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12월 23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시작됐으며 교분을 쌓고 있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서로 동참하고 있다. 권력이 강화된 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면서 주민주권과 주민자치 실현을 앞당겨보자는 취지다.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2.0에 대해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을 갖고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박찬주 의장은 지난 19일 안기전 금산군의회 의장의 챌린지 지명을 받아 홍보팸말을 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음을 알렸다.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박찬주 의장은 “자치분권 2.0 시대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자치단체



전춘성 진안군수, 읍·면 이장과 소통행정 나서

전춘성 진안군수는 새해를 맞이해 군정 발전을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섰다. 이번 소통회의는 지난 18일 주천면을 시작으로 11개 읍·면 이장회의 일정에 맞춰 행정 최 일선에서 뛰고 있는 마을 이장을 만나는 방식으로 열린다. 공감하는 소통행정 추진을 위해 실시하는 연초 방문을 코로나19로 인해 생략하고, 형식을 최소화하여 최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읍·면 이장

들의 주요 현안 및 정책사항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간담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열리며 지역현안과 진안군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현장토론으로 진행된다. 군은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은 이장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검토해 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태형 진안경찰서장, 진안군 명예군민으로 선정

진안군은 김태형 진안경찰서장을 명예군민으로 선정하고 20일 명예군민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군은 지역사회에 공이 있거나 기여할 사람을 발굴해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 있으며, 4번째 명예군민으로 김태형 서장을 선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생인 김태형 경찰서장은 2020년 1월 20일 진안경찰서장으로 취임해 재임하는 동안 사회적 약자보호 등 군민 맞춤형 치안활동으로 안전한 진안을 구현하는데 헌신했다. 특히 김태형 서장은 진안군에 남다

른 관심으로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주민 눈높이에 맞는 치안활동을 펼쳐왔으며 탁월한 업무능력과 친화력으로 범죄예방 대응체계와 치안인프라 구축에 큰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군민을 대표해 전춘성 군수가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했다. 전춘성 군수는 “지역발전과 안전한 치안유지에 큰 도움을 주신 김태형 서장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며 진안군을 홍보하고 위상을 높여가는데 함께해주실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장수군, 목재펠릿보일러 난로 지원 사업 추진

장수군이 겨울철 난방비 절감과 기후변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가 높은 목재펠릿보일러·난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목재펠릿보일러는 펠릿을 연료로 하는 온수보일러로 1대 당 설치비용은 약 400만원이다.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에 한해 보일러 및 난로 설치비(보일러 400만원, 난로 150만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거용은 보조금 70%, 지부담 30%이며 사회복지용은 보조금 100%이다. 올해는 7대(주거용 5대, 사회복지용 2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목재펠릿은 목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톱밥이나 폐목재를 가공해 만드는 친환경 연료로 불에 태울 때 이산화탄소 발생이 거의 없고 연소율이 95%에 달해 신재생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 지원희망자는 오는 29일까지 거주하고 있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보건소, 노인복지 사업 대상자 모집

진안군보건소(소장 이임옥)는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구강회복과 건강한 구강유지를 위해 노인복지(틀니)사업 대상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2021년 노인복지(틀니)사업 모집 인원은 18명이며,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로 구강검진 시 의치(틀니) 장착이 가능한 어르신이 그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완전의치, 부분의치 모두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부분 의치의 경우에는 1인 연약기준 보철(지대치) 3개까지 지원한다. 군 보건소는 진안군치과의사와 협의를 거쳐 관내 치과의원 4개소를 시술기관으로 지정하고, 의치제작과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보건소 건강증진팀 구강보건실(063-430-8538)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